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그 시가가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양상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사회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사회의 폐단에 대해서 비판했던 고전 시가들이 빈번히 발견된다.

(가)

해 뜨자 원숭이가 언덕에 나타나고 日出猿生員(일출원생원)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 猫過鼠盡死(묘과서진사)
황혼이 되자 모기가 처마에 이르고 黃昏蚊檐至(황혼문침지)
밤 되자 벼룩이 자리에서 쏘아 대네 夜出蚤席射(야출조석사)
-김병연, 「원생원」-

(가)에서는 남루한 옷차림의 화자가 지역 유지에게 술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 데서 지역 유지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가)에서는 화자가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들을 동물들에 빗대는 우화적인 수법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때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에 ‘생원’, ‘진사’, ‘침지’, ‘석사’ 등의 한자어를 붙이고,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조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다라 안자
것넌 산(山)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덕 뛰어 내닷다가 두힘 아래 잣마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식만정 에혈질 번하괘라

(나)는 증장의 길이가 정해진 형식보다 더 긴 사설시조로, 당시 탐관오리의 수탈이 심했던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두꺼비와 다른 동물들 간의 위계를 표현하여 서민-중간 계층-최고 권력자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약육강식의 두꺼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백성을 수탈하는 양반의 횡포와 백성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이 강대국의 침략에 외면하는 비굴한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와 (나)에서는 동물을 소재로 삼아 조롱하고 풍자하는 특성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다)

새로 짜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
이방*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네.
누전*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삼월 중순 세곡선*이 서울로 떠난다고.

<제7수>

-정약용, 「탐진춘요」-

*이방: 조선 시대에, 각 지방 관아에 속한 육방(六房) 가운데 인사 관계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황두: 이방 아래의 말단 관리.

*누전: 토지 대장의 기록에서 빠진 토지.

*세곡선: 예전에, 나라에 바치는 곡식을 실어나르던 배.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다)에서는 당시 강진에서 귀양 살이를 하고 있던 다산이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목격하고 무자비하게 수탈함으로써 농민의 고된 삶을 더 힘

들게 만드는 관리를 고발하고 있는 데에서 다산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다산의 애민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고전 시가 중에는 백성의 어려운 삶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부패한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작품도 존재한다.

(라)

문무 양반 목민(牧民) 중의 학민(虐民)*하는 원님네들
 이내 말씀 배척 말고 마음 새겨들어 보소
 성(城)안에서 들을 제는 총명인자(聰明仁慈)하다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 어이 저리 다르시고
 내려갈 제 돈 썼는가 들어갈 제 돈 썼는가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전과 함께인가
 술에 삭았는가 고량진미에 막혔는가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두움 내었으며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
 내 모를가 자네 일을 자네 일을 나는 아네
 착한 본성 잃은 속에 자기 욕심 길러 내어
 사단지목(四端之目)*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선사양전(善事兩銓)* 그만하고 자목백성(字牧百姓)* 하여 보소
 -작자 미상, 「향산 별곡」-

*학민: 백성을 가혹하게 다룸.
 *사단지목: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이룸.
 *선사양전: 이조 전랑과 호조 전랑을 잘 설김.
 *자목백성: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아 다스림을 이르던 말.

19세기를 대표하는 가사인 (라)에서는 백성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고 관리들을 비판하는 가사이다. (라)는 가사에 쓰인 어휘를 볼 때 양반이 쓴 가사로 추정되고 있다. ㉠(라)를 양반이 쓴 가사로 보게 된다면, 당시 혼란스러운 사회에 대한 양반의 시각과 양반이 쓴 가사의 한계를 엿볼 수 있게 된다.

(라)는 부패한 정치 상황과 부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다른 조정 대신과 매관매직, 과거제의 폐단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전에 우회적으로 비판한 다른 양반들의 가사와 달리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하는 데서 파격적인 사상이 드러난다. (라)에서는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고 서술하여 유교적 가르침을 통해 부패한 관리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도 드러난다.

18. (나),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당시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② (다)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당시의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시적 화자가 동일한 인물로 고정되며, 이러한 화자의 특성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나)에서는 화자의 말을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다)에서는 시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나)에서는 대조를 통해 시적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고, (다)에서는 직유법을 통해 시적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19. (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민하는 원님네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당시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탐관오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 ② ‘기생’, ‘간사한 아전’, ‘술’, ‘고량진미’는 모두 관리가 이전과 달라진 이유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내려갈 제 돈 썼는가 들어갈 제 돈 썼는가’를 통해 당시 백성들을 위하여 돈을 아끼지 않는 관리의 모습을 통하여 ‘학민하는 원님네들’에게 선정을 베풀라고 촉구하고 있다.
- ④ ‘총명’과 ‘인자’, ‘어두움’과 ‘포악’을 대조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모습에서 예전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길 촉구하고 있다.
- ⑤ ‘사단지목’을 모르는 관리에게 ‘자목백성’하길 바라는 데서 당시의 관리에게 선정을 베풀길 당부하고 있다.

20. ㉠을 바탕으로 (라)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라)에서 한자어가 많이 사용된 것에서, (라)를 작성한 이가 양반임이 드러나고 있군.
- ② (라)에서 유교적 가르침을 통해 부패한 관리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데서, 당대의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는 양반들의 근시안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군.
- ③ (라)에서 직설적 어조로 사회의 문제를 지적한 데서, 당시 양반들이 사회의 문제를 비판한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파격적인 사상이 드러나고 있군.
- ④ (라)에서 현재 백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리들이 유교적 가르침에 따르기를 바라는 데서,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드러나고 있군.
- ⑤ (라)에서 당시 사회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하여 당대 사회의 모순이 드러나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하려는 양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군.

21. (가)~(다)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의 ‘생원’, ‘진사’, ‘첨지’, ‘석사’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하여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군.
- ② (나)의 ‘두터비’는 ‘파리’를 무는 대상으로, 당시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드러내며, 이를 통하여 당시 양반들이 행했던 횡포를 드러내는군.
- ③ (나)의 ‘두터비’는 ‘백송골’이 떠있는 것을 보고 놀라 ‘두힘’ 아래로 넘어진 직후의 태도와 ‘두터비’가 ‘파리’를 문 직후의 태도를 통하여 양반층의 허장성세와 양반층의 위선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나)의 ‘파리’는 ‘두터비’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 대상으로서 (가)의 ‘고양이’로 인하여 죽는 ‘쥐’와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당시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애환을 드러내는군.
- ⑤ (다)의 ‘황두’는 ‘이방’과 상하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나)의 ‘백골송’과 상하 관계를 이루는 ‘두터비’와 동일한 층위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다)의 ‘황두’는 백성에게서 수탈하기 위해 핑계를 대는 탐관오리의 비겁함을 드러내는군.